

쿵란의 성서 시편들과 11QPs^a의 배열 문제 및 그 정경적 함의¹⁾

김정우*

들어가는 말

시편의 배열에 있어서 마소라 사본과 70인역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으며, 본문 비평 문제에 있어서도 두 본문 사이에는 ‘다른 저본(底本)’을 가정할 만큼 심각한 차이가 없으므로, 구약성서학계는 오랫동안 시편의 저본이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되어 전수되었을 것으로 가정하여 왔다. 그러나 1947년 처음 사해 사본이 발견되고 1956년 처음 시편 두루마리가 발견되며, 특히 그로부터 10년 후인 1965년 11QPs^a가 출판됨으로써 전혀 다른 배열 순서를 가진 시편 본문의 전통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성서 시편의 정경화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었으며, 쿵란 시편의 성격, 용도, 정경성 문제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우리는

* 홍신대 신대원 교수, 구약학, 본지 발행인

- 1) 이 글에서 ‘쿵란의 시편’이란 용어는 쿵란 공동체가 창작하고 사용한 그들의 ‘찬송가집’(Hodayot)을 의미하지 않고, 그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성서의 시편’을 의미한다. 쿵란의 찬송가집(Hodayot)은 성서 시편(詩篇)과 구별하기 위하여 ‘쿵란의 시집(詩集)’으로 이름 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Svend Holm-Nielsen, *Hodayot: Psalms from Qumran* (Aarhus: Universitetsforlaget, 1960); Martínez, Florentino García, et al., ed., *The Dead Sea Scrolls Study Edition* (Leiden; New York; Köln: Brill, 1997-1998) 참조.

이 글에서 쿵란의 시편은 마소라 사본의 시편과 배열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으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였고, 시편의 정경성과 관련하여 어떤 함의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쿵란 시편의 현황

지난 2000년의 세월 동안 유대 광야에 묻혀 있다가 1956년부터 11개의 동굴과 그 주위에서 새롭게 태어나 오늘 우리에게 열린진 쿵란의 시편 두루마리는 모두 39개이며,²⁾ 전반적인 현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³⁾

(1) 쿵란의 시편 두루마리들은 제4동굴(4QPs)에서 모두 23개, 11동굴에서 5개 발견되었으며, 그 나머지로서는 1동굴(3개), 2, 3, 4, 5, 6, 8 동굴에서 각각 1개씩, 마사다(Masada)에서 2개, 그리고 나할 헤벨(Nahal Hevel)에서 1개를 합하여 모두 39개가 발견되었다.

(2) 대부분의 두루마리들은 단편들을 담고 있으나, 쿵란 시편의 대표적인 작품인 11QPs^a는 6개의 단편과 28개의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이 두루마리들의 기록 연대는 주전 175년(4QPs89)에서부터 주후 50-68년(4QPs^c)에 이르고 있다.⁴⁾

2) 그러나 무엇이 ‘시편 두루마리’로 구성되는냐에 대한 논쟁이 있으며, 4Q522는 시편 122편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주제를 담고 있어서 ‘시편 두루마리’라기 보다 ‘시편을 담고 있는 두루마리’로 분류되기 때문에 논쟁의 여기가 있다. 송창현은 시편 사본의 숫자를 36개로 제시한다. 송창현, “쿵란 사본과 정경의 문제,” *Canon&Culture: A Journal of Biblical Interpretation in Context* 1:1 (2007), 82.

3) 그 목록은 플린트의 「Appendix 2」(우리의 「도표 1」)에서 일목요연하게 제시된다. Peter W. Flint, *The Dead Sea Psalms Scrolls and the Book of Psalms* (Leiden: Brill, 1997), 252-253.

4) 기록 연대 목록은 플린트의 「Appendix 2」(우리의 「도표 1」), 칼럼

(4) 마소라 시편 150편 가운데 한 절이라도 나오는 시편은 모두 126개이다.⁵⁾

(5) 시편 제1-3권에서 단 한 절도 발견되지 않는 시편은 모두 19개다(3-4, 20-21, 32, 41, 46, 55, 58, 61, 64-65, 70, 72-75, 80, 87편).

(6) 시편 제4-5권에서는 단지 네 편만 나타나지 않고 있다(90, 110, 111, 117편).

(7) 쿵란의 시편에는 모두 16개의 외경시들이 다섯 개의 두루마리에 흩어져 나타난다(4Q88, 4Q522, 11Q5=11QPs^a, 11Q6, 11Q11). 이들 중 여섯 개의 시들은 이미 알려진 시들로서, ‘다윗의 유언’(삼하 23:1-7) 외에 다섯 개의 비정경 시들(151A[시리아 시편 1], 151B[시리아 시편 1], 154, 155편, 시락 51:13-23, 30)이 있으며, ⁶⁾ 쿵란 외의 사본 및 역본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열 개의 두루마리가 있다.⁷⁾

2. 쿵란 시편의 배열 순서

쿵란 성서 시편의 연구사를 되돌아보면, 1965년 전후에 근본적인 차이가 생겨난다. 1965년 이전까지 출판된 쿵란 시편들은 그 순서와 내용에 있어서 성서 시편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그 해에 샌더스가 11QPs^a 시편 두루마리를 출판한 이후부터,⁸⁾ 학자들은

VI)에서 일목요연하게 제시되고 있다.

5) 플린트의 「Appendix 5-1」을 보라.

6) 이 본문들의 영어 번역은 Flint, *Dead Sea Psalms Scrolls and the Book of Psalms*, 244-246을 보라.

7) 외경시 5편(축귀시들 네 편과 신뢰시 한 편)과 유다 송가(Apostrophe to Judah), 시온의 노래(Apostrophe to Zion), 다윗 시들(David's Compositions), 종말론적 찬양(Eschatological Hymn), 창조주 찬양(Hymn to the Creator), 구원 간청(Plea for Deliverance)이다.

쿰란 공동체가 마소라 사본의 전통과는 전혀 다른 사본의 전통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시편 본문 비평에 있어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이루게 되었다. 이리하여 학자들은 시편의 본문 비평에 있어서 쿰란 사본의 번역 원칙, 수정, 첨가, 오류, 원문에 더 가까운 독법 등 그 가치를 평가하는 협소한 본문 비평 작업에서 벗어나, “히브리어 시편이 정경화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쿰란 사본들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라는 정경론(正經論) 문제로 넘어가게 되었다. 우리가 볼 때, 쿰란 사본의 본문 비평적 가치 문제와 시편의 정경론에 있어서 쿰란 시편의 위치 문제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이 글에서는 배열에 있어서 두 사본 전통의 차이를 확인한 이후, 그 정경적 의미에 대한 토론으로 넘어가려고 한다.⁹⁾

배열의 관점에서 볼 때, 쿰란 시편 두루마리는 제1-3권(1-89편)에 서는 마소라 사본과 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나 제4-5권에 있어서는 심각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만든다.¹⁰⁾

(1) 제1권(1-41편)에서는 대부분의 시들이 마소라 사본과 거의 동일한 순서로 나타나고 있으나,¹¹⁾ 31편 다음에 바로 33편으로 넘어가며(4QP^s^a; 4QP^s^q), 38편에서 바로 71편으로 넘어가고 있다(4QP^s^a).

8) J. A. Sanders, *The Dead Sea Psalms Scroll* (Ithaca, New York: Cornell Uni. Press, 1967).

9) 우리는 이 글에서 쿰란 시편의 본문 비평적 가치 문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김정우, 『시편주석』 1 (서울: 총신대출판부, 2005), 27-56, 특히 38-44를 보라.

10) Flint, *Dead Sea Psalms Scrolls and the Book of Psalms*, 138-141; Appendix 3을 보라. 이것은 우리의 「도표 2」에 제시되어 있다.

11) 제1권에서 마소라 사본과 순서가 일치하는 쿰란 시편들은 다음과 같다. 5→6, 7→8, 9→10, 12→13, 13→14, 15→16, 17→18, 23→24, 26→27, 27→28, 28→[29], [29]→30, 34→35, 36→37, 39→40. 여기에서 [] 표시는 본문을 재구성하였음을 가리킨다.

(2) 제2권(42-72편)에서는 38편에서 바로 71편으로 넘어가는 것 외(4QPs^a)에는 모두 마소라 시편의 순서를 지지한다.¹²⁾

(3) 제3권(73-89편)에서는 모두 마소라 사본의 순서와 일치하게 나타난다.¹³⁾

(4) 제4권(90-106편)에서는 일곱 개의 사본에서 마소라와 일치하게 나타나지만,¹⁴⁾ 차이점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두 개의 외경시들이 정경시 사이에 끼어 등장하고 있으며(외경시 III →91, 91→공백, 시온의 노래(Apostrophe)→93), 정경시의 순서 역시 크게 달라지고 있다(93→141, 103→112, 118→104, 104→147, 147→105, 105→146, 106(?)→147). 만약 쿨란에서 발견된 시편들이 그 당시의 순서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제4권은 91-93, 141, 94-103, 112, 118, 104, 147, 105, 146편의 순서로 구성 되었을 것이다.¹⁵⁾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마소라 사본에서 강한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103-107편의 흐름은 쿨란 사본에서는 깨어지며, 112, 118, 147, 146편이 이 시편들 사이에 삽입되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제5권(107-150편)에서는 9개의 외경과 그 외 시들이 삽입되었을 뿐 아니라, 마소라의 배열 순서와 일치하는 곳 보다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두 사본 전통에서 순서가 동일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07→[108?], [108?→109, 112→

12) 제2권에서 마소라 사본과 순서가 일치하는 쿨란 시편들은 다음과 같다. 49 →50, 50→51, 51→52, 52→53, 53→54, 62→63, 63→[64], [64→65], [65]→66, 66→67, 67→[68], [68]→69.

13) 제3권에서 마소라 사본과 순서가 일치하는 쿨란 시편들은 다음과 같다. 76 →77, 77→78, 81→82, 82→83, 83→84, 84→85.

14) 제4권에서 마소라 사본과 순서가 일치하는 쿨란 시편들은 다음과 같다. 91 →92, 92→93, 93→94, 95→96, 99→100, 101→102, 102→103.

15) Flint, *Dead Sea Psalms Scrolls and the Book of Psalms*, 139.

113, 114→115, 115→116, 116→[117], [117]→118, [120] →121, 121→122, 122→123, 123→124, 124→125, 125→126, 126→127, 127→128, 128→129, 129→130, 130→131, 131→132, 135→136, 137→138, 142→143, 147→[148], [148→149], [149] →150, 150 →[공백]

쿰란 사본에서 마소라 사본과 순서가 다른 경우는 다음과 같다. 109→ 시온의 노래(Apostrophe to Zion)→103→112, 118→104, 132→119, 119→135, 148→[120], 외경시 →122, 132→119, 141 →133, 133→144, 140→134, 134→151A, 135:12→136:22, 138→ 시락 51, 구원의 간청→139, 139→137, 다윗 시집→140, 140→ 134, 93→141, 141→133, 155→142, 133→144, 144→155, 136+Catena→145, 105→146, 146→148, 104→148, 104→147, 106(?)→147, 147→104, 147→105, 146→148, 148→[120], 143→ 149, 150→찬양, 151B→공백.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다면, 제5권에서 마소라 사본의 112-118편, 120-132편의 순서는 쿰란에서도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으나, 나머지 부분에서는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119편은 120-132편의 흐름 직후에 나오며 바로 이어서 135-136편이 나오고 있으므로, 쿰란 공동체에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120-132편)의 정점에 119편을 두고, 이어서 구속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두 개의 시로 연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35-136편).¹⁶⁾ 그 외의 나머지 시들은 어떤 내적인 논리성을 따라 배열되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예로서 구속사 시편인 103편 다음에는 가정 시편인 112편이 나오고,

16) 대부분의 시편들은 쿰란에서 거의 한 두 두루마리에 나오고 있지만, 119편은 6개의 두루마리에 나타나며(1QPs^a, 4QPs^a, 4QPs^{sq}, 5QPs, 11QPs^a), 특히 11QPs^a에서는 거의 모든 절이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1-6, 15-28, 37-49, 59-73, 82-96, 105-120, 128-142, 150-164, 171-176절), 119편이 시편이 쿰란 공동체에서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다.

감사 시편인 118편 다음에는 창조 찬양시인 104편이 나오는 것은 문맥의 관점에서 볼 때 잘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이상의 분석을 도표로 만들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책	연속 시들	마소라와 일치점	마소라와 차이점
1권	30편	17회	2회
2권	13편	12회	1회
3권	8편	6회	0회
4권	11편	7회	11회[외경 포함]
5권	33편	26회	38회[외경 등 포함]

쿰란 시편에 나오는 외경 및 비정경시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책	외경 및 비정경시들
1권	0
2권	0
3권	0
4권	2
5권	11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쿰란 시편의 관점에서 볼 때 원마소라 (Proto-MT) 사본의 제1-3권(1-89편)은 쿰란 공동체가 활동하던 시대에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였으므로 첫 세권에서는 두 사본의 전통이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따라서 비정경 시편들도 삽입될 여지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제4-5권에 있어서는 배열 순서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뿐 아니라 상당수의 외경 및 비정경시들까지 나타나고 있으므로, 쿰란 시편의 정경성과 마소라 사본 및 70인역 시편의 정경화 과정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3. 11QPs^a와 시편의 정경화 문제

3.1. 11QPs^a와 마소라 시편의 배열 차이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콤파스에서 39개의 필사본이 발견되었고, 마소라 사본에 나오는 150개의 시편 가운데 단 한 절이라도 나오지 않는 시는 모두 25편이므로,¹⁷⁾ 마소라 사본의 150편 가운데 약 5/6(83% 정도)가 콤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히브리 시편의 정경성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비중 있게 부각된 사본은 바로 11QPs^a이다. 이 시편 두루마리는 역사적으로 주후 30-50년에 쓰여졌으며, 39개의 정경 시편과 9개의 비정경 시편이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 기존하고 있는 필사본 가운데 가장 방대하며 약 50여 개의 시편이 담겨 있다.¹⁸⁾

11QPs^a에 나타난 시편의 순서를 마소라 사본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¹⁹⁾

(1) 두 시편에서 101, 102, 103편의 흐름은 동일하지만, 11QPs^a에서는 103편에서 104편으로 연결되기 전에 109, 118편이 나타나며,

17) 마소라 사본에 나오는 150개의 시편 가운데 3, 4, 20, 21, 32, 41, 46, 55, 58, 61, 64, 65, 70, 71-75, 80, 87, 90, 110, 111, 117편은 콤파 시편에서 단 한 절이라도 나오지 않는다.

18) 콤파 학자들 가운데 Skehan, Wilson, B. Z. Wacholder, M. Chyutin의 11QPs^a에 대한 구조분석의 요약은 Flint, *Dead Sea Psalms Scrolls and the Book of Psalms*, 187을 보라.

19) 약어 부호 설명: AZ(시온의 노래, Apostrophe to Zion), AJ(유다 송가, Apostrophe to Judah), AP, (외경시, Apochryphal Psalm), DW(다윗의 유언, David's Last Word), DC(다윗 전집, Davidic Compositions), EH(종말론적 찬양, Eschatological Hymn), HC(창조주 하나님 찬양, Hymn to the Creator), PD(구원 간청, Plea for Deliverance).

다시 104편으로 이어지다가 147편이 삽입된 이후에 다시 105편으로 연결되고 있다(101→102→103; 109; 118→104→147→105→146→148→).

해설: 마소라 사본에서 103, 104, 105, 106편은 서로 분리하기 힘들 정도로 강한 주제적 통일성을 갖고 있다. 즉, 시내 산 계시에 나타난 주님의 인자하심(103편), 천지창조에 나타난 주님의 인자하심(104편), 족장들의 역사로부터 가나안 정복사에 나타난 주님의 인자하심(105편), 출애굽으로부터 바빌론 포로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이스라엘의 배신과 범죄(106편)가 치밀하게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11QPs^a에서는 이 시들 사이에 ‘악인에 대한 저주 기원시(109편), 창조 질서에 나타난 주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147편), 사회 정의를 세우시는 주님 찬양(146편), 창조와 역사에 등장하는 만물과 만인에 대한 찬양 요청(148편)으로 연결되고 있다. 우리는 11QPs^a에서 왜 주제의 흐름이 깨어지는 시들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쿨란의 편집자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2)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순서는 두 사본 전통에서 거의 일치하며(120-132편), 11QPs^a에서는 119편이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 ([+120] →121→122→123→124→125→126→127→128→129→130→131→132→119→135→136(+118:1, 15, 16, 8, 9, 29)→).²⁰⁾ 마소라 사본의 관점에서 보자면, ‘다윗의 시’(108-110편), ‘할렐 루야 시들’(111-118편), ‘알파벳 토라 시편’(119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120-134편)가 완벽한 단락과 흐름을 갖고 있다. 특히 118편에는 이미 성전 입장 의식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으므로(19-27절), 119

20) 마소라 사본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133과 134편은 분리되어 다른 그룹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즉, 11QPs^a에서는 136→118→145편으로 흐르고 있다.

편에서 토라에 대한 헌신을 한 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연결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11QPs^a에는 119편 후에 바로 135→136편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

해설: 쿰란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다음에 119편을 둔 것은 성전 예배와 토라를 밀접하게 연결시킨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마소라 사본의 전통을 따라 본다면, 토라 찬가(119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120-134편), ‘성전에 드리는 찬 하나님에 대한 찬양’(135편), 창조와 구속사에 나타난 주님의 인자하심 찬양(136편)이 일관성 있는 주제의 흐름을 따라 배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5편은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도록 요청하는 부름이 수미일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1-3, 19-21절), 성전에 오르는 노래와 완벽한 일치를 이룬다. 따라서 11QPs^a에서 119편 다음에 바로 135→136편으로 연결되는 것은 주제의 흐름에서 매우 어색하다.

(3) 11QPs^a에서는 마소라 사본의 마지막 할렐루야 찬양(145-150편) 부분의 순서가 크게 깨어지며, 이들 사이에 다섯 개의 외경 시들이 삽입되고 있다(145[+후기]²¹)→154→구원의 간청[PD]→139→137→138→시락 51→시온노래[AZ]→93→141→133→144→155→142→143→149→150→).

해설: 마소라 사본에서 145편은 ‘다윗의 시’로서 제5권 마지막에 나오는 ‘다윗의 시들’(138-145편)의 마지막 시로 나오고 있으며, 이어서 마지막 ‘할렐루야’ 시편 다섯 편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146-150편). 145편에서 ‘주님께서 약자를 돌보시는 사회 정의 실현’ 주제가 나오고 있으며(14-17절), 동일한 주제가 146편에서 심화되어 나타나

21) 145편의 마지막 절은 “야웨를 송축하고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라. 이것은 기념을 위한 것이다(this is for a memorial)”라는 후기(postscript)가 첨가되어 있다.

므로(7-9절) 두 시편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에 반하여, 11QPs^a에서는 145편을 ‘기념시’(catena)로 분류하고, 다섯 개의 외경시인 지혜 모티프를 다루는 154편과²²⁾ 구원 요청 시편(PD),²³⁾ 다시 지혜시인 시락 51,²⁴⁾ 시온 찬가(AZ)²⁵⁾와 신뢰시인 155편을²⁶⁾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그 사이에 130 편대의 네 시(139, 137, 139, 133), 140편의 시 여섯 편(141, 142, 143, 144, 149, 150편)을 보여주고 있다. (4) 마소라 사본에서는 150편으로 시편이 끝나지만, 11QPs^a에서는 150편 마지막 절 다음에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HC)²⁷⁾과 다윗의 유언(삼하 23:1-6)에 이어 다윗이 시편을 지었다는 설화체 곁어가 뒤따라 나오고 있다(제27칼럼).²⁸⁾ 이어 뒤따라 나오는 다윗의 시

22) 154편은 시리아 시편 II^a로 불려지기도 한다(Sanders, *Dead Sea Psalms Scrolls*, 69). 이 시편에는 ‘지혜’, ‘제사’, ‘율법 묵상’ 등의 다양한 주제들이 뒤섞여 있다.

23) 구원 간청시(PD)에서 시인은 죽음 앞에서 주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의로우심,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자신의 죄와 악을 고백하고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간청하고 있다.

24) 시락 51:1-11[12-22], 23. 이 시에서 시인은 짧은 시절 잘못된 길로 가기 전에 지혜를 발견하고 바른 길을 따라 살아 인생을 꽃피웠음을 고백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혜는 의인화 되며, 애인으로서 짧은이와 열면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25) 시온 찬가에서 시인은 시온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며, 시온의 구원과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시온을 미워하는 불의한 원수들이 끊어질 것을 구하고 있다.

26) 혹은 시리아 시편 III^a로 불리며, 이 시에서 주님은 ‘진리의 재판장’(din ha’emet)이시며, 시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 받기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구하고 있다.

27) 시인은 주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자비와 진리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주님 보좌의 기초임을 노래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혜로 부요하게 하심을 찬양한다.

28) Sanders, *Dead Sea Psalms Scrolls*, 137에 제시된 본문을 보라. 여기에서 다윗은 ‘이세의 아들’로서 “지혜롭고, 태양 빛처럼 빛나며 유식하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모든 행위에서 분별력 있고 완전하였다”는 찬사와 함께

140편은 이 단락이 다윗을 중심으로 편집되었음을 제시하여 주지만, 134편이 뒤따라 나오는 것은 논리적인 흐름을 깨뜨리고 있다. 끝으로 11QPs^a는 70인역과 페쉬타 시편에서 단축된 형태로 나오는 비정경 시인 151편을 151A와 151B로 분리하여 제시하고 있다(HC→DW→DC→140→134→151A²⁹⁾→151B³⁰⁾→공란).³¹⁾

해설: 마소라 사본은 다섯 개의 찬양 시편(146-150편)으로 모든 역사적인 암시를 초월하고 찬양 자체에 집중하며 시편의 대미를 우렁차게 장식하고 있다. 이와 반면에 11QPs^a는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 저작에 집착하고 있으며, 시편이 ‘다윗의 저작’이므로 권위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마소라 사본과 70인은 시편 제4-5권의 배열과 내용에 있어서 거의 일치성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내용의 흐름도 매우 탄탄하고 논리적이다. 그렇지만, 11QPs^a의 배열은 매우 느슨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이와 같이 11QPs^a와 마소라의 시편의 두 사본 전통에서 시편의

“3,600개의 시와 450개의 노래(한 해를 위한 매일의 찬송가 364곡, 안식일을 위한 52곡, 새 달과 총회와 속죄일을 위한 30곡, 그리고 병자를 위한 4곡)를 지어 모두 4,050개의 작곡하여”(2-11행),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 받을 자격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 모든 노래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을 따라 지어졌다”(11행). 즉, 다윗의 노래는 하나님의 예언적 계시이다.

29) 151A는 다윗이 이새의 집 막내로서 목동이었고, 목동으로 생활하는 동안 악기를 만들어 산과 들에서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었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 보다 잘생긴 형들을 제치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음을 노래한다.

30) 151B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불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31) 이 점에 대해서는 Sanders, *Dead Sea Psalms Scrolls*, 94-103과 P. W. Skehan, “The Apocryphal Psalm 151,” *CBQ* 25 (1963), 407-409의 토론을 보라.

배열 순서와 범위의 차이점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는 11QP^s의 성격과 정경성과 시편의 정경화 과정에 대한 뜨거운 논의가 제기되었다.³²⁾ 우리는 학자들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정리하여 보았다.

3. 2. 11QP^s의 정경적 지위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들

3.2.1. 샌더스의 입장

샌더스는 11QP^s를 히브리 시편이 최종적으로 정경화 되기 전에 원-마소라 사본의 전통과 구분된 독자적인 초기 형태의 ‘정경적 시편’이며, 구체적으로 ‘쿵란 시편’(Qumran Psalter)이라고 이름 짓는다.³³⁾ 즉, 그는 원-마소라 시편이 150편으로 정경화 되어가던 과정 속에 쿵란의 시편도 정경화 과정을 거쳐가고 있었으며, 11QP^s는 그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³⁴⁾ 그는 11QP^s를 정경의 초기 형태로 규정하며 그 근거로서 두 가지를 제시한다.

(1) 11QP^s의 끝부분의 제27칼럼의 첫 행에 나오는 “그리고 바깥방의 나무, 그리고 그들은 앉은 자리에서 완전히 불타버린다”³⁵⁾는 말씀은 구약성경에서 ‘다윗의 마지막 말씀’(삼하 23:1-7)의 마지막 절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현재 마소라 본문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표현은 본 시편의 정경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정경적인 권위’는 부여한다고 본다.³⁶⁾

32) 이 두 사본 사이에 있는 순서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글의 결론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33) Sanders, *Dead Sea Psalms Scrolls*, 89.

34) Flint, *Dead Sea Psalms Scrolls and the Book of Psalms*, 151 참조.

35) “*and the wood of an outside room, and they are utterly consumed with fire in the sitting.*”

36) Sanders, *Dead Sea Psalms Scroll*, 21, 87.

(2) 시편 151A와 151B를 비롯한 몇 개의 비정경적 작품들이 정경적 시편 선집 밖에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샌더스는 이 시들이 비정경적 시로 포함되었다고 보기보다 역설적으로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하고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 시들은 70인역에서 정경적인 시편 전집 속에 들어오지 못하며, 이 두 시편을 한 편(151편)으로 묶고 “이것은 [정경적 시편] 숫자 밖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이 두 시는 70인역에서 비정경적 시로 이해되었음을 말한다. 그러나 콤파넌 시편에는 이와 같은 표현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두 시는 시편이 헬라어로 번역되기 전에 이미 콤파넌 공동체에서 사용되었으며, 그 시기는 아직 ‘비정경적인 시’로 결정되기 전이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만약 콤파넌 공동체가 설화체 결어 다음에 나오는 이 두 시를 비정경적인 시로 여겼다면, 바로 앞에 나오는 시편 134:1-3과 140:1-5도 비정경적인 시편으로 여겼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리하여 샌더스는 11QPs^a의 설화체 결어에 근거하여 이 시편이 콤파넌에서 정경적 위치를 누리고 있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이 콤파넌 시편은 ‘고정된(fixed) 정경’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열린(open-ended) 정경’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하게 되었다.³⁷⁾ 샌더스는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린다.³⁸⁾

이 모든 점들을 살펴볼 때, 제4동굴과 제1동굴에서 나온 모든 자료들을 출판하기 전까지 당분간, 시편 두루마리를 시편의 마지막

37) 그는 특히 시편의 마지막 삼권 부분에서는 이 유동성이 두드러진다고 본다. 이 유동성은 왜 원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모음집에 있던 133편(제 23칼럼)과 134편(27칼럼)이 원래의 단락에서 벗어나 다른 단락 속에 자리잡고 있는지 설명해준다고 말한다.

38) J. A. Sanders, “Variorum in the Psalms Scroll,” *HTR* 59 (1966), 89.

세 번째 부분에서 이미 엄격하게 고정된 정경에서 이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편 정경화에 있어서 다면체적인 역사의 이정표로 여겨야 한다. 정경화는 점진적이고 복잡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11QPs^a는 이후에 완성된 마소라 사본을 이루는 히브리 시편에서 유래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것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마소라 전통과 확실히 다른 본문상의 전통으로 여겨야 한다.

3.2.2. 스케한의 입장

스케한은 샌더스가 다른 동일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그와 정반대되는 결론을 내렸다.

그것이 시작하는 방식이나 끝나는 방식이나 그 사이에 있는 여러 시사하는 점들을 볼 때, 11QPs^a는 150개 시편의 표준적인 전집에 의존하며 쿰란의 시편 자료들 중 그 어느 것도 이와 상충되는 견해를 실제적으로 시사할 수 있는 개연성을 제시하지 못한다.³⁹⁾

다시 말하자면, 11QPs^a는 쿰란에서 정경적 시편으로서 마소라 사본 이전의 다른 전통을 반영한다기 보다 오히려 마소라 사본에 담긴 정경적 시편이 완성된 이후의 것으로서 마소라 시편의 전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케한은 원 마소라 시편 사본이 11QPs^a보다 우선함을 증거하기 위해 역대상 16:8-36에서 역대 기자가 시편 전집의 자료들 중에서 시편 105편, 95편과 106편을 인용하였음을 증거로 제시한다.⁴⁰⁾ 특히 그는 역대상 16:36의 말씀이 단지 시편 106편에서 한 절을 인용한

39) P. W. Skehan "Qumran and Old Testament Criticism," M. Delcor, ed., *Qumran: sa Piété, sa Théologie et son Milieu*, BETL 46 (Gembloux: Duculot, 1978), 172.

40) Ibid., 167-168.

것이 아니라, “편집자가 정경적 시편 제4권의 마지막에 첨가한 것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달리 말하자면, 주전 400년경 역대 기자는 시편 106편의 첫 절과 마지막 절 만을 정해진 장소에서 빌린 것이 아니라, 첨가된 48절에서 빌려 왔음을 말해준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의 구성에 있어서 기준점(bench mark)이 된다.”⁴¹⁾ 나아가 스케한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시편의 제5권이 주전 400년에 만들어졌다고는 주장하지 않겠지만, 정경적 시편이 페르시아 시대 이후에 만들어지는 않았다는 크로스(Cross)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평가한다.⁴²⁾

3.2.3. 곱센-곱스타인과 탈몬의 입장

곱센-곱스타인에 따르면, 11QPs^a는 “의식적 선집이상의 그 무엇으로도 의도되지 않았음”을 11QPs^a의 시편 145편으로 제시한다.⁴³⁾ 이 시편은 쿠파란 사본에서 12-21절이 보존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매 절마다 “주님을 송축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는 후렴이 모두 12회 나오고 있다.⁴⁴⁾ 곱센-곱스타인은 이 후렴에 근거하여 주후 1세기 초기에 두 개의 다른 시편이 있었다기보다, 쿠파란 사람들이 기존하고 있는 정경 시편을 그들의 제의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움을 논증하고 있다. 즉, 11QPs^a의 시편 145편에 나오는 후렴의 첨가는 다른 ‘정경’(canon)의 문제라기보다 ‘제의적 목적으로 새로 쓴 다른 본문’(text)의 문제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논증하고 있다.

41) Ibid., 168.

42) Ibid.

43) M. H. Goshen-Gottstein, “The Psalms Scroll (11QPs^a): A Problem of Canon and Text,” *Textus* 5 (1966), 29.

44) “Blessed be the LORD and blessed be his name for ever and ever,” (Sanders, *Dead Sea Psalms Scroll*, 67).

11QPs^a의 시편 145편 마지막 절에는 “이 [시편]은 …을 기념케 하는 것이다”⁴⁵⁾라는 부제가 나타나는 점은 이 시편의 의식적인 기초를 잘 드러내어 주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⁴⁶⁾ 탈몬은 이런 현상을 분석하면서 쿰란의 “필사본 속에 있는 수많은 비정경적 삽입들(non-canonical interpolations)은, 쿰란과 마사다와 나할 헤벨에서 발견된 다른 모든 시편 본문들과 11QPs^a를 구별해 준다. 더구나 정경적 시편을 비정통적으로 배열한 것은 우리가 이 종파가 자체의 거룩한 예배를 위해 제의적으로 구성한 작품을 다루고 있음을 시사해준다”고 결론지으면서 샌더스와 가정을 비판한다.⁴⁷⁾ 즉, 탈몬과 곳센곳스타인이 볼 때, 11QPs^a는 제의적 목적을 따라 선별된 고대의 ‘찬송가’(Hymn book)의 원형에 불과하다.

3.2.4. 윌슨의 입장

위에 제시된 샌더스와 스케한의 상반된 견해에 대해 윌슨은 두 사람의 기여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이 둘에 대하여 모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먼저 샌더스에 대해 윌슨은 “쿰란 서기관들이 시편의 ‘표준적인’ 마소라 본문과는 다른 순서를 제시하며 또한 정경시편에 ‘외경’ 시편들을 첨가하는 문제”를 보면서 쿰란 사본이 현 시편의 정경적 순서를 전체적으로 지지해주는 통계와 지지하지 않는 통계를 살핀다.⁴⁸⁾ 그는 여기에서 쿰란 시편이 현재의 다섯 권 안에 일정한 순서가 있음을 증거하면서도, “첫 세 권에는 배열의 갈등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나 마지막 4권과 5권에서는 갈등이 괄목하게 증가

45) Sanders, *Dead Sea Psalms Scroll*, 67.

46) P. W. Skehan, “A Liturgical Complex in 11QPs^a,” *CBQ* 34 (1973), 195-205. 그는 이 글에서 다양한 제의적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47) S. Talmon, “Pisqah Be’emsa Pasuq and 11QPs^a,” *Textus* 5 (1966), 12.

48) G. H. Wilson, “The Qumran Psalm Manuscripts and the Consecutive Arrangement of Psalms in the Hebrew Psalter,” *CBQ* 45 (1983), 377.

하고 있다”고 결론 내린다.⁴⁹⁾ 이 현상은 샌더스의 입장 즉, 시편의 점진적 안정성 이론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는 못하지만, “양립할 수 있는 증거는 된다”고 판단하며, 이것은 “주후 50년까지 시편 배열에 어떤 느슨함이 있었고, 그 직후에 이 현상은 사라졌다”는 결론을 내린다.⁵⁰⁾

월슨은 스케한의 입장에 대해 역대상 16:8-36과 그 속에 인용되었다고 하는 시편의 연관성이 “만족스럽게 입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⁵¹⁾ 또한 역대기의 본문은 “시편 105, 96, 106편의 혼성곡으로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고 본다.⁵²⁾ 더구나 월슨이 볼 때 여러 책들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 송영 자료들 중 몇 개는 후대의 첨가였다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⁵³⁾

또한 스케한이 시편 5권은 그 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다섯 권으로 정확하게 구분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월슨은 이 구분이 모호했다고 본다.⁵⁴⁾ 스케한 자신도 최소한 히브리어 시편은 11QPs^a 보다는 앞선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마소라 사본을 이 시기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그것이 완전히 표준화된 사본은 아니었지만, 쿰란 본문에 상당 부분 존재했다”는 입장으로 한 걸음 물러서 있다.⁵⁵⁾

49) Ibid., 388.

50) Ibid., 387.

51) Wilson “The Qumran Psalm Scroll Reconsidered,” 632-633.

52) Ibid., 633.

53) 물론 월슨 자신은 송영이 원래의 시편에 속한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그렇게 높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히브리 시편의 내적인 구분에 관하여, 이런 구분이 있었음을 드러내는 실마리들이 비록 미묘한 형태이지만 존재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Yeivin 1969, 76-102).

54) Ibid., 633.

55) Skehan, “Qumran and the Present State of Old Testament Text Studies,”

3.2.5. 플린트의 입장

플린트는 그의 대작 『사해 시편 두루마리들과 시편』에서 쿰란 시편의 문제에 대한 가장 종합적인 토론을 방대하고도 심도 있게 다루면서, 이 시편이 쿰란 공동체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 그들을 포함하여 태양력을 사용하는 폭넓은 유대인들의 집달들에서 수집되고 사용되었다고 보며 그 근거로서 세 가지를 제시한다.⁵⁶⁾

(1) 11QP^s에 나오는 모든 개체적 시들은 쿰란 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 쿰란에서 발견된 시편 속에 ‘정의의 스승’(moreh ha-tsedeg)과 같이 분과적 공동체성을 명시하는 표현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 시들 가운데 어떤 것도 그곳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제시해준다.

(3) 이 수집품에 나오는 364일의 태양력은 이 공동체가 세워지기 전에 있었던 유대 문헌에도 입증되고 있다(제1에녹 72-82장; 주빌리, 성전 두루마리).

이리하여 플린트는 ‘쿰란 시편’이라는 용어는 모호함으로, ‘11QP^s 시편’(11QP^s-Psalter)으로 이름 짓도록 제시한다.⁵⁷⁾ 그는 최종적으로 ‘필사본’(manuscripts)과 ‘모음집’(collections)을 구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나는 하나의 두루마리로서 11QP^s가 쿰란에서 공동체의 용도로 필사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은 11QP^s가 하나의 모음집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시편은 거의 분명히 쿰란 공동체가 나타나기 이전 시대에 수집되기 시작하였을 것이며(compiled), 태양

21.

56) Flint, *Dead Sea Psalms Scrolls and the Book of Psalms*, 199.

57) *Ibid.*, 199.

력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는 상당히 넓은 그룹들의 시편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결론

11QPs^a의 발견과 번역은 시편의 ‘정경성’과 ‘본문 비평’에 있어서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고 있으나, 우리는 최종적으로 두 가지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1) 쿵란 공동체에서는 11QPs^a로 대표될 수 있는 시편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는가?

(2) 쿵란의 성서 시편, 특히 11QPs^a의 배열에 대하여 우리는 최종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은 11QPs^a의 정경성에 관한 문제이며, 두 번째 질문은 왜 쿵란에는 마소라 사본의 시편과 다른 전통의 시편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첫째로, 11QPs^a의 정경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학자들(스케한, 굿센-굿스타인, 탈몬)은 주로 거부하는 입장에 있으며, 북미의 학자들인 샌더스와 플린트는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문제는 일차적으로 ‘정경’(canon)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른 대답이 나오게 될 것이다. 넓게 본다면, 쿵란의 시편은 정통 유대교(MT 전통)와 기독교회에서는 정경으로 수용되지 않았지만, 쿵란 공동체는 11QPs^a를 그들의 정경(canon)으로 수용하였을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을 것이다.⁵⁸⁾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쿵란 공동체의 정경 개념은 시편에 있어서 정통 유대주의와 이후 신약교회의 정경 개념과 달랐

58) 송창현은 11QPs^a에 집회서 51장이 담겨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 어떤 쿵란 사본도 집회서를 권위 있는 책으로 인용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집회서는 쿵란에서 권위 있는 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린다. 송창현, “쿵란 사본과 정경의 문제,” 90.

다고 볼 수 있으며, 이리하여 그들은 몇몇 외경과 정경 및 외경에서 조차 나오지 않는 시들도 그들의 필요에 따라 ‘경전적 가치’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⁵⁹⁾ 그러나, 좀 더 협소하게 본다면, 11QPs^a와 같은 형태의 성서 사본은 쿵란 밖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본은 독특한 용도를 가진 것이며, 쿵란 밖에서는 정경적 가치를 거의 인정받지 못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마소라 시편 사본과 11QPs^a의 배열의 차이에 대한 이유는 학자들에 의하여 다양하게 설명되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스케한은 11QPs^a가 ‘제의적인 성격’ 때문에, 시편의 4-5권 중 보유하고 있는 44개의 정경 시편 중 11개를 빠뜨렸다고 주장한다.⁶⁰⁾ 고셴-곳스타인도 11QPs^a가 ‘제의적인 찬송가’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선택적이었으며, 기존하고 있는 시편의 배열을 엄격하게 따를 필요도 없었고, 정경 및 외경 밖의 작품들도 흡수하여 그들의 예배에 사용하였다고 판단한다.⁶¹⁾ 이 두 학자들에 따르면, 시편은 이미 주전 4세기에 정경으로 고정되었고, 11QPs^a는 주전 2세기경부터 쿵란 공동체가 자체의 필요를 위하여 기존하고 있던 시편을 편집하고 복사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에 반하여 샌더스는 11QPs^a가 마소라 사본과는 다른 정경화의 과정을 거친 작품으로 보며, 마소라 사본이 정경화되기 전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시편 1-89편까지는 쿵란 공동체가 출현하기 전에 이미 정경화되었지만, 제4

59) 우리는 ‘정경론’과 관련하여, ‘정경의 성격과 범위, 권위, 영감, 배타성, 지역성과 보편성’ 등의 문제 대한 더 깊은 토론을 남겨 두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우, “정경과 문화”, *Canon&Culture: A Journal of Biblical Interpretation in Context* 1:1 (2007), 5-42를 보라.

60) P. W. Skehan, “The Biblical Scrolls from Qumran and the Text of the Old Testament,” *Biblical Archaeologist* 28 (1965), 87-88을 보라.

61) Goshen-Gottstein “The Psalms Scroll (11QPs^a): A Problem of Canon and Text,” 29.

-5권은 주후 70년 잠니아에서 정경이 결정되기 전까지 ‘유동적으로 열린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있다.⁶²⁾ 그러나 샌더스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면서도 더 종합적인 연구를 한 플린트에 따르면 11QPs^a는 쿰란에서 창작하거나 편집한 시편이라기 보기보다, 쿰란 공동체의 출현 전에 이미 존재하였고, 쿰란 공동체를 비롯하여 ‘태양력’에 따라 새롭게 쓰여진 시편을 수용하는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11QPs^a 속에는 제의적 성격은 명백하게 나타나고,⁶³⁾ 독자적인 공동체적 성격이 암시되고 있기 때문에,⁶⁴⁾

-
- 62) 전통적인 역사비평학적 입장에서 잠니아 회의는 구약성경의 정경성을 결정할 모임으로 이해하지만, 실제적으로 잠니아에서는 에스겔, 잠언, 전도서, 아가서의 정경성에 대한 토론이 있었지만 정경을 결정하지는 않았다. 더 자세한 토론은 Sid Z. Leiman, *The Canonization of Hebrew Scripture: the Talmudic and Midrashic Evidence* (Hamden: Archon Books, 1976)를 보라.
- 63) ‘의식적 성격’과 ‘정경적 성격’은 상호배타적(스케한, 굿센-굿스타인, 탈몬) 혹은 상호 보충적(샌더스와 플린트)으로 달리 평가되고 있다. 11QPs^a의 제 xix 칼럼에 있는 구원 간청시에는 “사단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부정한 영과 고통과 악한 경향이 내 뼈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십시오”라는 후대 신학이 나타나고 있다.
- 64) 탈몬과 윌슨은 둘 다 11QPs^a의 다양한 배열과 삽입 속에 본질적으로 분과적인 성격이 없다고 말하지만(Talmon, “Pisqah Be’emsa Pasuq and 11QPs^a,” 13-14; Wilson, “The Qumran Psalm Scroll Reconsidered,” 628), 독특한 공동체적 색채는 생각한 것 보다 더 미묘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11QPs^a를 다른 쿰란 문헌과 비교해 볼 때 쉽게 드러난다. 예로서, ‘구원을 요청하는 간청’을 담고 있는 부분(19칼럼)은 제4동굴에서 발견된 몇 개의 페체르 시편과 유사하며, 시인들은 그들을 향한 전형적인 적대감으로부터 구원받기를 구한다. 물론 이런 역사적 성격이 11QPs^a에는 감추어져 있지만, 이것은 아마 다른 동굴에서 발견된 시편들은 보다 교훈적(parenetic)인데 반하여 11QPs^a는 그 주된 기능이 제의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쿨란 공동체는 마소라 사본 및 70인역의 전통과는 다른 성경의 시편을 만들어 사용하였다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려 볼 수 있을 것이다.

<도표 1>

Flint, <i>The Dead Sea Psalms Scrolls</i> , APPENDIX 2						
유대 광야에서 발견된 시편 두루마리들의 현황						
	I	II	III	IV	V	VI
1	1QP ^s ^a	1Q10			86:5 to 119:80	50 BCE
2	1QP ^s ^b	1Q11			126:6 to 128:3	1st c. CE
3	1QP ^s ^c	1Q12			44:3 to 44:25	Herodian
4	2QP ^s	2Q14			103:2 to 104:11	Herodian
5	3QP ^s	3Q2			2:6-7	1st c. CE
6	4QP ^s ^a	4Q83	X		5:9 to 71:14	mid-2nd c. BCE
7	4QP ^s ^b	4Q84	X		91:5 to 118:29	2nd half 1st c. BCE
8	4QP ^s ^c	4Q85			16:7 to 53:1	ca. 50-68 CE
9	4QP ^s ^d	4Q86	X		104:1 to 147:20	mid-1st c. BCE
10	4QP ^s ^e	4Q87	X		76:10 to 146:1?	mid-1st c. CE
11	4QP ^s ^f	4Q88		X	22:15 to 109:28	ca. 50 BCE
12	4QP ^s ^g	4Q89			119:37 to 119:92	ca. 50 CE
13	4QP ^s ^h	4Q90			119:10-21	Herodian
14	4QP ^s ⁱ	4Q91			48:1 to 53:5	ca. 50 CE
15	4QP ^s ^k	4Q92	X		99:1? To 135:16	1st century BCE
16	4QP ^s ^l	4Q93			104:3 to 104:12	2nd half 1st c. BCE
17	4QP ^s ^m	4Q94			93:3 to 98:8	Herodian
18	4QP ^s ⁿ	4Q95	X		135:6 to 136:23	late 1st c. BCE
19	4QP ^s ^o	4Q96			114:7 to 116:10	late 1st c. BCE
20	4QP ^s ^p	4Q97			143:3 to 143:8	Herodian
21	4QP ^s ^q	4Q98	X		31:24 to 35:20	mid-1st c. CE
22	4QP ^s ^r	4Q98a			26:7 to 30:13	Herodian
23	4QP ^s ^s	4Q98b			5:8 to 88:17	50 CE or later
24	4QP ^s ^t	4Q98c			42:5 only	ca. 50 CE
25	4QP ^s ^u	4Q98d			99:1 only	late 1st c. BCE
26	4QP ^s ^v (?)	4Q98e(?)			18:26-29	Herodian
27	4QP ^s 89	4Q236			89:20 to 89:31	175-125 BCE
28	4QP ^s 122	4Q522		X	122:1 to 122:9	2nd third of 1st c. BCE
29	5QP ^s	5Q5			119:99 to 119:142	1st century BCE
30	pap6QP ^s	pap6Q5			78:36-37	(uncertain)
31	8QP ^s	8Q2			17:5 to 18:13	1st century CE
32	11QP ^s ^a	11Q5	X	X	93:1 to 150:6	30-50 CE

33	11QPs ^b	11Q6	X	X	77:18 to 1444:2	1st half of 1st c. CE
34	11QPs ^c	11Q7			2:1 to 25:7	1st half of 1st c. CE
35	11QPs ^d	11Q8			6:2 to 116:1	mid-1st c. CE
36	11QPsAp ^a	11Q11		X	91:1-16	50-70 CE
37	Hev/Seiyal	Khabra/Seelim			15:1 to 31:22	2nd half of 1st c. CE
38	MasPs ^a	M1039-160			81:1 to 85:6	1st half of 1st c. CE
39	MasPs ^b	M1103-1742			147:18 to 150:6	2nd half of 1st c. BCE

<도표 2>

Flint, <i>The Dead Sea Psalms Scrolls</i> , APPENDIX 3		
시편 두루마리들에서 서로 연결되고 있는 시들의 현황		
1	1QPs ^a	95→96
2	4QPs ^a	5→6; 31→33; 34→35→36; 38→71; 53→54; 62→63 [+64+65] →66→67 [+68] →69
3	4QPs ^b	91→92+93+94; 99→100; 102→103→112→113; 116 [+117] →118
4	4QPs ^c	27→28; 49→50→51→52→53
5	4QPs ^d	106→147→104
6	4QPs ^e	76→77; 115→116; 118→104 [+147] →105→146(?); 125→126 [+127+128] →129→130
7	4QPs ^f	107 [+108(?)] +109→AZ+EH+AJ
8	4QPs ^g	135 [+AP] →99
9	4QPs ^h	135:12→136:22
10	4QPs ⁱ	114→115
11	4QPs ^j	31→33
12	4QPs ^k	26→27 [+28+29] →30
13	4QPs ^l	5→6
14	4QPs122	AP→Ps 122
15	11QPs ^a	101→102→103; 118→104→147→105→146→148 [+120] →121→ 122→123→124→125→126→127→128→129→130→131→132→ 119→135→136(with Catena)→145(with postscript)→154→PD→ 139→137→138→Sirach 51→AZ→93→141→133→144→ 142→143→149→150→HC→DW→DC→140→135→151A→ 151B→공란 [두루마리 끝]
16	11QPs ^b	77→78; Catena; PD; AZ; Ps 141→133→144
17	11QPs ^c	12→13→14; 17→18
18	11QPs ^d	36→37; 39→40; 115→116
19	11QPsAp ^a	Apocr. Ps I + Apocr. Ps II → Apocr. Ps III → Ps 91 → 공란 [두루마리 끝]
20	Hev/Seiyal	7→8; 9→10→11; 12→13; 15→16; 23→24
21	MasPs ^a	81→82→83→84→85
22	MasPs ^b	147 [+148+149] →150→공란 [두루마리 끝]

<약어표>

약 어 표	
AJ	Apostrophe to Judah(유다 송가)
AZ	Apostrophe to Zion(시온의 노래)
AP	Apochryphal Psalm(외경시)
DW	David's Last Word (다윗의 유언)
DC	Davidic Compositions(다윗 전집)
EH	Eschatological Hymn(종말론적 찬양)
HC	Hymn to the Creator(창조주 하나님 찬양)
PD	Plea for Deliverance(구원 간청)

<주요어>

쿰란, 마소라 사본, 시편, 11QPs^a, 정경성, 배열, 70인역

<Key Words>

Qumran, Massoretic text, Psalms, 11QPs^a, canonization, arrangement, LXX

참고문헌

- 김정우, “정경과 문화,” *Canon&Culture: A Journal of Biblical Interpretation in Context* 1:1 (2007), 5-42.
- 김정우, 『시편주석』 1, 서울: 총신대출판부, 2005.
- 송창현, “쿰란 사본과 정경의 문제,” *Canon&Culture: A Journal of Biblical Interpretation in Context* 1:1 (2007), 72-104.
- 유윤중, “사해 사본 11QP^s와 시편의 정경화,” 「신학논단」 43 (2006), 235-248.
- Braude, William Gordon, trans., *The Midrash on Psalms. Translated from the Hebrew and Aramaic*,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9.
- Burrows, M., *More Light on the Dead Sea Scrolls*, New York: Viking Press, 1958.
- Flint, Peter W., *The Dead Sea Psalms Scrolls and the Book of Psalms*, Leiden: Brill, 1997.
- Ginsberg, C. D., *Introduction to the Massoretic-Critical Edition of the Hebrew Bible*, New York: Ktav., 1966; org. ed. 1897.
- Goshen-Gottstein, M. H., “The Psalms Scroll (11QP^s): A Problem of Canon and Text,” *Textus* 5 (1966), 22-33.
- Hedley, P. C., “The Goettingen Investigation and Edition of the Septuagint,” *HTR* 26 (1933), 57-72.
- Holm-Nielsen, Svend, *Hodayot: Psalms from Qumran*, Aarhus: Universitetsforlaget, 1960.
- Jellicoe, S., *The Septuagint and Modern Study*, Oxford: Clarendon Press, 1989.
- Martínez, Florentino García, et al., ed., *The Dead Sea Scrolls Study Edition*. Leiden/New York/Köln: Brill, 1997-1998.
- Pietersma, A., *A New English Translation of the Septuagint and Other Greek Translations Traditionally Included under that Title THE PSALMS*, New York/Oxford: Oxford Univ. Press, 2000.

- Sanders, J. A., "Pre-Masoretic Psalter Texts," *CBQ* 27 (1965), 114-123.
- Sanders, J. A., "Psalm 151 in 11QPs^a," *ZAW* 75 (1963), 73-86.
- Sanders, J. A., "The Scroll of Psalms (11QPs^a) from Cave 11: A Preliminary Report," *BASOR* 165 (1962), 11-15.
- Sanders, J. A., "Two Non-Canonical Psalms in 11QPs^a," *ZAW* 76 (1964), 57-75.
- Sanders, J. A., "Variorum in the Psalms Scroll," *HTR* 59 (1966), 83-94.
- Sanders, J. A., *The Dead Sea Psalms Scroll*, Ithaca/New York: Cornell Univ. Press, 1967.
- Shunary, J., "Avoidance of Anthropomorphism in the Targum of Psalms," *Textus* 5 (1966), 133-144.
- Skehan, P. W., "A Liturgical Complex in 11QPs^a," *CBQ* 34 (1973), 195-205.
- Skehan, P. W., "A Psalm Manuscript from Qumran (4QPs^b)," *CBQ* 26 (1964), 313-322.
- Skehan, P. W., "Qumran and the Present State of Old Testament Text Studies: The Masoretic Text," *JBL* 78 (1959), 21-25.
- Skehan, P. W., "The Apocryphal Psalm 151," *CBQ* 25 (1963), 407-409.
- Skehan, P. W., "The Biblical Scrolls from Qumran and the Text of the Old Testament," *Biblical Archaeologist* 28 (1965), 87-100.
- Skehan, P. W., "Qumran and Old Testament Criticism," M. Delcor., ed., *Qumran: sa Piété, sa Théologie et son Milieu*, BETL 46, Gembloux: Duculot, 1978, 163-182.
- Skehan, P. W., "The Qumran Manuscripts and Text Criticism," *SVT* 4, Leiden: Brill, 1957, 148-160.
- Swete, H. B.,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in Greek*, New York: Ktav., 1968.
- Talmon, S. "Pisqah Be'emsá Pasuq and 11QPs^a," *Textus* 5 (1966), 11-21.
- Tov, E.,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Fortress, 1992.

- Wilson, G. H., "The Qumran Psalm Manuscripts and the Consecutive Arrangement of Psalms in the Hebrew Psalter," *CBQ* 45 (1983), 377-388.
- Wilson, G. H., "The Qumran Psalm Scroll Reconsidered: Analysis of the Debate," *CBQ* 47 (1985), 624-642.
- Wilson, G. H., *The Editing of Hebrew Psalter*, SBLDS 76, Chicago: Scholars Press, 1985.
- Wuertwein, E., *The Text of the Old Testament*, E. F. Rhodes., Trans., Grand Rapids: Eerdmans, 1979.
- Yeivin, I., *Introduction to the Tiberian Masorah*, E. J. Revell., Trans., Masoretic Studies 5, Chicago: Scholars Press, 1980.

<초록>

쿰란의 성서 시편들과 11QPs^a의 배열 문제 및 그 정경적 함의

김정우

(총신대 신대원 교수, 구약학)

쿰란 동굴들에서 1956년 처음 시편 두루마리가 발견되고 특히 그로부터 9년 후인 1965년 11QPs^a가 출판되어 마소라 사본 및 70 인역과는 전혀 다른 배열 순서를 가진 시편 본문의 전통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11QPs^a의 출판은 시편의 본문 비평에 대한 새로운 차원을 열었을 뿐 아니라, 쿰란 성서 시편의 성격과 용도 및 정경성 문제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우리는 이 글에서 쿰란의 성서 시편은 마소라 사본의 시편과 그 배열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으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였고, 시편의 정경성과 관련하여 어떤 함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먼저 쿰란 시편의 현황 및 일반적인 배열 순서를 분석한 후, 11QPs^a의 정경화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11QPs^a의 정경화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이 사본 전통이 마소라 시편과는 배열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통계적으로 살펴 보면서 그 배열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여 보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11QPs^a의 정경적 지위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들을 살펴 보면서, 대표적으로 샌더스, 스케한, 곳센-곳스타인과 탈몬, 윌슨, 최종적으로 플린트의 입장을 보면서 학자들 상호 간에 있는 논쟁들을 소개하였다. 결

론적으로 본 논고는 (1) 쿰란 공동체에서는 11QPs^a로 대표될 수 있는 시편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2) 쿰란의 성서 시편, 특히 11QPs^a의 배열에 대하여 우리는 최종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후, 11QPs^a와 같은 형태의 성서 사본은 쿰란 밖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이 사본은 쿰란 안에서는 정경으로 수용되어 사용되었을 수 있었지만, 쿰란 밖의 다른 신앙 공동체에서는 정경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것으로 결론 내리게 되었다.

<Abstract>

The Qumran Psalms and the Canonical Implication of the Differences in the Editorial Arrangement of Psalms in 11QPs^a

Prof. Jungwoo Kim
(Chongshin Univ.)

Ever since the first discovery of the Psalm scrolls at Qumran caves in 1956, and especially, the first publication of the 11QPs^a in 1966, text critical scholars came to realize that there was a totally different tradition of the textual transmission of the Psalms from those of MT and LXX psalms. And as a result, there broke out a hot debate about the nature,

uses, background, function and above all, the problem of the canonicity of the Qumran biblical psalms. In this paper, the author gives a brief outline on the general affairs of the Qumran psalms as a whole, together with their editorial arrangements in comparison to that of the MT psalms. Then follows the major discussion about the issue of the canonical status of the 11QPs^a in particular. In the process, the differences between MT psalms and 11QPs^a in terms of the editorial arrangements are listed with statistics, together with plausible explanations of the differences. Then follows the debate about the canonical status of the 11QPs^a by the representative scholars such as J. A. Sanders, P. W. Skehan, S. Talmon, G. H. Wilson, and P. Flint. Finally, the author deals with the canonical status of the 11QPs^a in and outside of the Qumran communities.